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배우 이정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데뷔작 '꽃잎' 비롯해 총 6편 상영 · J 스페셜클래스'로 관객과의 만남 예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배우 이정현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섹션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중 프로그래머를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 류현경을 시작으로 영화감독 연상호, 배우이자 감독 백현진, 영화감독 허진호 등 4명의 프로그래머가 자신만의 영화적 세계를 선보이면서 매년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래머가 누구인지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섹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5회차를 맞은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의 주인공은 배우, 가수 등 다방면의



배우 이정현

노 음악으로 아시아의 한류스타로 활약하며 배우와 가수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 베를린영화제에서 단편 황금곰상을 수상한 박찬욱 · 박찬경 감독의 <파리연락>

멀티 아티스트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 이정현이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장선우 감독의 <꽃잎>으로 데뷔해 뛰어난 연기력으로 연기상을 휩쓸며 천재 여배우로 주목받은 배우 이정현은 20살

으로 배우로 복귀해 영화 <명량>,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반도>, <해어질 결심>,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며 스크린과 안방 모두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의 프로그래머 이정현은 "관람한 후 한 쪽이 떨어져 나간 영화 티켓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이어리에 모아놓고 학교 쉬는 시간마다 꺼내 보며 다음은 무슨 영화를 보러 충무로에 갈지 그 기대에 잠들지 못한 날들도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배우 이정현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연출자로서 면모도 선보인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서 본인의 연출 데뷔작인 단편 <꽃놀이 간다>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통한지, 초등 사회교과서에 스며들다

전주문화재단, 전주 전통한지 삽입 초등 사회교과서 8개 시 · 군 보급

전주한지가 삽입된 초등학교 3학년 지역 사회 교과서가 도내 8개 시 · 군에 보급됐다. 18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완주, 임실, 부안, 익산 등에 배포된 '전주 전통한지 삽입 초등학교 지역 사회 교과서'를 올해 8개 시 · 군으로 확대, 보급했다. 이번에 삽입된 전통한지는 전주한지장 김천종,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등 4인이 손수 제작한 것으로, A4 기준 19,000여 장(전통한지 2,400여 장)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포함됐다. 지역별 보급량은 △전주 7,000부 △임실 200부 △완주 1,000부 △부안 350부 △익산 2,500부 △순창 250부 △진안 120부 △김제 550부다. 전주 지역의 경우 사회교과서에 한지 편지 1장과 책갈피 제작 체험용지 1장이 삽입됐으며, 타 지역에는 전통한지 원지 또는 편지지 형태로 제공됐다. /장은성 기자



특히 전주문화재단은 전통한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도내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주 전통한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졸업장을 제작 · 배포할 계획이다.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는 "전주 전통한지의 확산을 목표로 올해 8개 시 · 군에 보급했다"며 "앞으로 보급 지역을 확대해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주민 위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김환태문화관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의 문학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2,290만 원을 확보하게 된 무주군은 상주 작가 채용 절차를 진행,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할 예정이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 작가가 도서관 · 문학관 · 서점 등의 문학기반시설에 상주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환태문화관에서는 지난해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문학강연회 꿈 시작'을 비롯한 '문학감성아카데미', '경경소금문학관 기행', '1:1 맞춤형 문학상담소' 등

을 운영한 바 있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공모 선정이 지역주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와 여건을 확대하고 작가의 창작 환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인구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주천면, 22일 산수유 꽃 축제 개최

남원시 주천면은 오는 22일 외용궁마을 일대에서 주천면과 주천면 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4회 산수유 꽃 축제 및 효(孝) 잔치가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기념식과 흥겨운 농악단 공연 및 품바공연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방문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부대 행사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수유 그림그리기 대회와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전시 및 판매 부스를 둘러볼 수도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체험형 국악극 '별이와 무지개다리'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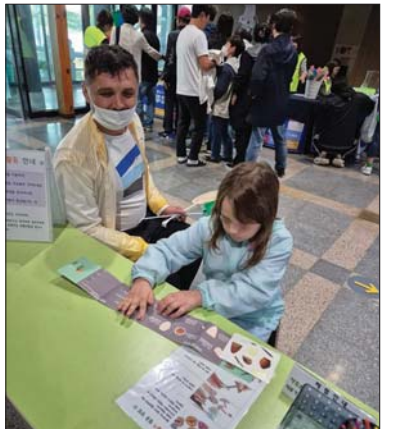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9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형 국악극 '별이와 무지개다리'를 초연한다. 공연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며 원작은 별이와 무지개다리, 별이와 지구별(로하이후복스 한나 원작)이다. 별이와 무지개다리는 반려견 '별이'와 어린이 '지울이'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사랑과 책임의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국악과 창작 안무로 풀어냈다. 연출과 각색은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김세희 단원이 맡았고,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들이 주요 배역으로 출연, 다양한 캐릭터들이 국악 선율과 안무로 표현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공연은 3월 29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서



진행, 관람 대상은 36개월 이상으로 전석 무료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 전화(063-620-2329)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 벽천미술관, 전통문화 체험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과 벽천미술관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내에 별도의 체험 코너를 마련해 전시와 연계된 자유로운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자산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과 벽천미술관에서 각각 전통놀이와 공예품을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손끝으로 만나는 전통놀이'라는 주제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강강술래 만들기'와 나무 팽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 공동체 놀이 문화를 체험하고, 6월에는 '선사시대 북아트 만들기'를 통해 선사시대의 생활과 예술을 탐색할 수 있다. 벽천미술관은 '색으로 피어나는 전통의 멋'이라는 주제로 이달부터 5월까지 '꽃 종이액자 만들기'와 6월에는 '평부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통 민화 문양을 활용한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



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와 연계된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전통문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통문화가 오늘날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을 알리고, 이를 창의적으로 계승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딸린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